

장춘시공안국

작은 개조로 고수준 평안중국 건설 노력

“예전에는 길을 건너려면 빨리 뛰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신호등이 생겨 훨씬 편리해졌어요!” 장춘 시민 왕선생의 말에는 장비아빠트단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져있었다. 아침 출근시간, 장춘시 조양구 변영로 남쪽에 위치한 장비아빠트단지 출입구에는 차량이 바둑판처럼 뻘뻘이 들어차 있다. 그 가운데 새로 설치된 신호등이 아침해살 아래 유난히 눈에 띈다.

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는 국가 안보체계와 안보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다. 장춘시공안국 당위는 전원회의의 정신을 참담게 학습 관철 시달하여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며 민심을 결집하는 데서 실제적인 방법을 내놓고 실제적인 일들을 해왔다.

어떻게 ‘평안축각’(平安触角)을 거리와 골목으로 확장시켜 ‘미세개조’로 ‘민생’을 움직이고 교통의 ‘작은 변화’로 군중들이 ‘민생 온도’를 느낄 수 있게 할가?

장춘시공안국은 ‘장춘 순시’ 활동을 가동하여 군중들이 ‘급해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러차례 경찰과 보조경찰을 조

직하여 기층 일선에서 조사연구를 했다. 교통관리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 발견, 정돈하고 군중들의 요구에 적극 응답하며 교통의 고질병을 전력으로 해결하고 교통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군중들의 이동 효율을 제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장춘 순시’ 활동을 전개한 이래 참여자들의 의견과 반응을 523건 수집하고 루계로 6,216건의 도시 막힘 문제를 해결했으며 103곳의 잠재적 위험을 정돈했다. 이 일련의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치는 장춘시 공안기관이 전원회의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여 인민대중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생동감 있는 모습들이다.

10월 25일, 장춘시공안국은 전원회의의 정신의 관철 실시를 절실하게 틀어쥐기 위하여 전문 주제 당위(확대) 회의를 소집하고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전달했으며 모든 경찰들이 사상과 행동을 전원회의의 정신에 확실하게 통일시키고 학습 관철 성과를 공안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 시 각급 공안기관은 명령을 듣고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층층이 이끌고 전원이 참여하는 학습 관철 열풍을 형

성했다. 동시에 학습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립체적인 학습 체계를 구축했다.

학습 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리론학습중심조 학습, 당위(지부) 특별회의, 주제당일 등 방식을 통해 전원회의의 정신을 있는 그대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 전달하여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고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실행하도록 확보했다.

공안기관 각급 당원지도간부들이 먼저 배우고 깊이 깨우친 후 기층 경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내용 해석과 정책 해독에 주력했다.

집중 강습을 강화하고 전원회의의 정신을 공안기관의 학습교양 전체 계획에 포함시켜 리론학습과 선전해석의 유기적 결합을 추진했다. 학습과 활용의 통일을 견지하고 학습 관철과 문제 해결, 사업 추진을 긴밀히 결부시켜 학습 성과가 진흥 발전을 수호하는 실제적인 성과로 절실하게 전환되도록 추동했다.

금후 장춘시공안국은 ‘고품질 발전’이라는 최우선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장춘도시권 건설이라는 ‘길림성 대계’를 둘러싸고 주책과 주업에 답각하여

‘안전 제일, 예방 위주’를 지침으로 경찰 업무를 경제사회발전의 전반 국면에 깊이 융합시킬 방침이다. 또 근무안보, 정밀타격, 정부최적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자동차제조, 광전정보, 문화관광 등 기간산업의 발전을 수호하고 장춘도시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튼튼한 장벽을 구축하며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데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고 직무 전환의 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법에 따라 각종 경영주제를 평등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더욱 목적성, 조작성이 있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군중들에게 리의’를 주는 새로운 정책, 새로운 조치를 연구하고 출범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맹렬한 공세를 개시하게 된다.

‘치리 효능 제고’의 핵심 요구를 둘러싸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장춘을 건설하는 데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고 기층 사회 치리 능력을 힘써 제고하여 인민대중들의 획득감이 더욱 풍족해지고 행복감이 더욱 지속가능해지며 안정감이 더욱 보장되도록 한다.

/ 길림일보

연변대학 조문학부 신입생들

‘애심김치’ 담그어 로전사와 어려운 이웃에



11월 1일,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조선언어문학학부 2025급 신입생들은 ‘문화로 변방을 지키고 변강을 건설한다’는 주제로 사회실천활동을 개회했다. 문화전승, 군민한마음, 민족단결을 융합한 이번 활동은 노래 <붉은 해 변강에 비추네>에서 언급된 ‘연변인민 투지 양양, 군민 단결로 변강 건설’의 시대적 의미를 생생히 전달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조별로 배추 썰기, 양념장 만들기, 겉절이, 밀봉 등 전통 김치 담그기 과정을 통해 배추김치를 완성했다. 학생들의 손맛이 담긴 아삭한 배추와 진한 양념장... 체임 교실은 전통문화의 생동감과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이번 실천활동에서 학생들은 김치를 직접 담그며 조선족 음식문화의 지혜를 체험하고 단결로 이웃과의 거리감을 좁히며 민족단결의 사상적 토대를 강화했다. ‘문화로 변방 수호’의 중요한 조치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민족단결과 변강안정’이

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는 함미원조 참전 로전사와 유가족 및 연길시의 공원, 진학, 신흥, 하남, 복산 등 여러 가두 사회구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속되었다.

변강은 국가 안보의 방패이자 문화교류의 전선으로 강국건설의 중요한 진지이다. 연변대학의 교사, 학생들이 담근 김치는 민족간, 군민간, 학교와 지역간의 정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며 ‘일류 학과’의 애국 정을 드러냈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조선언어문학학부당지부 서기 전해효교수는 “향후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근본 임무로 변강에 뿌리내리고 변강을 위해 봉사하도록 젊은 학자들을 이끌고 ‘문화로 변방 수호’를 변강안정 발전의 ‘소프트 파워’(软实力)로 삼아 변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고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현관기자

루가조선족향

무료 진료 봉사로 주민들 건강 챙겨

최근,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향촌 진흥의 건강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 통화시 휘남현 루가조선족향정부에서 주최하고 루가조선족향위생원이 지원한 ‘계절에 맞는 건강관리로 사계절 건강 지키자’ 계열 공익강좌가 정식으로 시작됐다.

이번 계열 공익강좌의 첫 행사로 ‘관상동맥심장병을 과학적으로 인지하고 건강의 첫 책임자가 되자’의 주제강좌를 진행했다. 의사들은 현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권위 있고 실용적인 건강지식을 제공하여 광범한 호응을 받았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공익강좌는 루가조선족향에서 ‘건강루가’ 건설을 심화하고 ‘군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 할기’를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향정부는 조직동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광범하게 선전하고 세심하게 준비했다. 향위생원은 경력이 풍부한 의사들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건강봉사를 제공했다. ‘정부—위생원 협력’의 이런 모식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훌륭한 의료봉사를 주민들의 문앞까지 직접 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좌가 끝난 후 위생원의 의사들은 또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혈압 측정, 일대일 건강상담 등 봉사를 제공했다. 동시에 주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위생원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니 이해하기도 쉽고 믿음이 가요!” 방금 혈압 측정을 마친 리씨 아주머니는 기쁜 어투로 “예전에는 이런 병들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건강은 자기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겠어요. 앞으로는 음식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루가조선족향정부의 관련 사업일군은 “이번 강좌의 성공적인 개최는 루가조선족향이 본지 자원을 통합하여 주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건설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금후 루가조선족향정부는 향위생원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계절에 맞는 건강관리로 사계절 건강을 지키자’ 공익강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정현관기자, 마지원 (马志媛)

길림성 ‘소방 선전의 달’ 활동 가동

11월 4일, 제 34번째 ‘전국 소방의 날’에 즈음하여 ‘전민소방, 생명지상—불과 전기 안전 사용’을 주제로 한 전 성 ‘소방 선전의 달’ 가동식이 장춘시소방과학보급교육관에서 있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 성장인 채둥이 활동에 참석하여 연설했다.

가동식에서 <2025년도 전 성 소방과학보급선전 선진사업일군 표창 결정>을 랑독하고 수상 대표에게 영예증서를 수여했다. 동시에 전 성 ‘소방

선전의 달’ 계열 주제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료해에 따르면 전 성 ‘소방 선전의 달’ 활동 기간에 각지, 각 부문은 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는 동시에 ‘전민소방, 생명지상—불과 전기 안전 사용’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교육선전 강도를 높이며 중점사업의 실행을 단단히 틀어쥐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선전 방법을 혁신하고 군중들이 즐겨하는 선전교육활동을 전

개하며 군중들이 화재사고의 교훈을 깊이 섭취하도록 인도한다. 불과 전기 사용 행위를 규범화하고 소방안전 기능을 습득하며 소방안전 리념이 더욱 깊이 자리잡게 하여 사회안정, 경제 발전 및 인민대중의安居락업을 수호하는 데 더욱 믿음직한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가동식은 우리 성 ‘소방 선전의 달’ 활동의 전면적인 전개를 의미한다. 우리 성은 ‘길림소방팬클럽 카니발 활동’, ‘소방자원봉사자 겨울철 100

일 선전활동’, ‘제2회 지소컵(知消杯) 소방지식경연’ 등 일련의 소방 주제 선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 상식을 대대적으로 선전 보급하고 소방선전 열풍을 지속적으로 일으킨다. 동시에 각종 인원 밀집 장소와 소방안전 중점단위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훈련과 대피 탈출 훈련을 광범하게 전개하여 군중들의 화재 위험 방어 능력을 확실하게 향상시킨다.

/ 길림일보

연길시 10월 모두 ‘좋은 날씨’

연길시 2025년 10월 공기질 우량률이 100%에 달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두 ‘좋은 날씨’였는데 그중 Ⅰ급(우수) 일수는 29일, Ⅱ급(량) 일수는 2일이었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제공

